



교회, 새로운 세상의 징표



정용진
요셉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관리국장

교회는 한 해의 전례력이 끝나갈 때 큰 환난과 지진 같은 세상 종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흔히 ‘묵시문학’이라 이름 지어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색감의 이야기는 사실 세상 끝 날에 벌어질 일을 알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재난이 오고 천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묵시문학의 전망이 드리워진 오늘 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초대교회 신자들이 지냈던 삶의 태도와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막 시작되고 성장할 무렵부터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습니다(63년 레오 황제). 신자들이 박해를 겪던 70년에는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신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교회의 위로와 희망,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천체가 흔들리고 별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 이집트,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로마와 같은 대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늘 하늘의 태양과 달, 천체에 두었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기원이고 기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전망은 그들의 모든 신념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신명 4,19; 이사 13,10; 34,4 참조). 묵시문학의 전망 아래에 기술된 괴수들의 나라와 무서운 짐승 같은 임금들은 한 번도 참다운 인간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인간(‘사람의 아들’)이 오고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 참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왔고, 그분이 이루신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제1독서, 제2독서, 복음)처럼, 교회는 새로운 세상의 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세상은 이곳이 아니며 우리는 순례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지역과 언어와 풍습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순례자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신자는 육적인 것 안에 살지만 육적으로만 살지 않고, 땅에 묻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사람으로 삽니다. 지상의 법에 순응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해 지상적인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영원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힘과 용기를 냅시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묵시 14,13).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마르 13,27).

‘최후의 심판’, 조토 디 본도네 작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전례 거행의 공통 표징 2 : 무릎 꿇음(長跪)

김형민 안토니오 신부 / 교구 복음화연구소장

자세와 동작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보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은 신자들과 성직자 그리고 봉사자들의 동작과 자세가 전례 거행이 아름답고 고상한 단순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과 자세가 전례 거행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적 자세는 개인의 취향을 따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공동선에 이바지하도록 교회의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42항 참조). 여러 동작 중에 무릎을 꿇는 동작長跪이 있습니다. 총지침은 무릎 꿇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건강 문제나 자리가 좁거나 사람이 너무 많거나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한 성체 성혈 축성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 백성이 ‘거룩하시도다’ 환호를 마친 다음 감사 기도 마지막까지, 곧 마침 영광송 끝의 ‘아멘’ 환호를 외칠 때까지, 그리고 영성체에 앞서 사제가 ‘하느님의 어린양’을 할 때까지 무릎을 꿇는 관습이 있는 곳에서는 그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43항)

또한 성금요일 전례에서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칠 때 사제나 부제가 무릎을 꿇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전례에서는 사계四季 축일이나 참회의 날들에 무릎을 꿇는 예절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 무릎을 꿇는 동작은 문화적인 이유나 현실적인 이유로 바꿀 수 있는 동작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릎을 꿇는 자세도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세가 낮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동작입니다. 마주 선 이가 위대할수록 더 자세를 낮춥니다. 자신을 더 작은 이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가장 작게 느낍니다. 영원 속에서 한결같고 위대하신 하느님, 그분 앞에서 모든 우주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한없이 크신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보

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선 인간을 그래서 교만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로 작아진 이는 무엄하게 버티고 있을까 봐 자신의 외양부터 낮추고 싶어집니다. 곧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은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신 예수님까지도 기도하기 위해 땅에 엎드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마르 14,35 참조).

물론 교회는 특별한 날에 무릎 꿇는 자세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325년) 교부들은 성찬례가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고 거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활 시기와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 축제를 서서 거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1500년 후에도 중요성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중세에는 죄와 참회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무릎을 꿇는 것을 선호하였다면, 현대는 인간의 품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으로 서서 미사를 거행하는 추세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드러내고 참회와 흠송의 마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간구가 더 애절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무릎 꿇음을 가르디니는 “무릎을 꿇을 때면 서둘러 해치우는 빈 동작이 되지 않도록 하자. 정성을 기울이자. 장래의 의의는 속마음도 더불어 하느님을 경외하며 공손히 숙이는데에 있기 때문이다. 성당에 드나들 때 또는 제대를 지나칠 때마다 절이나 장래를 하되 깊숙이 천천히 마음을 다하여 ‘나의 지존하신 하느님’ 하면서 하자. 거기에 참 겸손과 성실이 있으면 자신에게도 매번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참된 무릎 꿇음은 겸손한 마음을 표현할 때이고, 그때 하느님의 도움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거룩한 미사성체를 거행하는 중에, 언제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네

차은량 카타리나 / 수필가, 교구 가톨릭문인회

내년엔 못 와. 올해가 마지막이야 하는 말을 10년도 넘게 가을마다 하던 유씨 아저씨는 여든셋이던 7년 전, 우리 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남의 일을 다리지 못했습니다. 왜소한 몸집으로 지난 수십년간 우리 농사일을 거들어 주신 아저씨는 칠십 중반을 넘어 기운이 달리고부터는 논일을 제외한 밭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내 핸드폰 앨범 '농사' 폴더에 도리깨로 들깨를 터는 사진 몇 장이 내가 찍은 아저씨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저씨는 이태쯤 집에 계시다가 거동이 불편해져서 주간보호센터를 다녔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아저씨를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곤 했는데 올해는 차일피일 미루다 한 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아저씨는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올들어 두 번째, 가슴 속에서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년엔 못 와. 올해가 마지막이야 하는 말을 10년 전인 칠십부터 하다가 정말 안 오는 분이 또 있습니다. 봄가을 파종기와 추수철에는 항상 대장이 있었습니다. 위탁 영농업을 하는 우리는 수백 마지기 논을 맡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꾼이 여럿 필요합니다. 인력시장에서 불려오는 일꾼 두엇을 제외한 인근에 사는 남편 친구 제이와, 후배, 그리고 대장 아저씨 형제가 30여 년 창립 멤버이자 정예 멤버였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이씨 아저씨를 모두 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장은 3년 전 가을 벼 베기 쯤파티 때 비싼 소등심을 사왔고, 우리는 모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일흔일곱이면 아직 청년인데 웬 엄살이냐며 대장의 은퇴를 아쉬워했습니다. 이듬해부터 대장이 농사일에 참여하지 못한 후에도 하루 일이 끝나면 대장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밥만 먹으러 오면 되나 하면서도 기쁘게 달려와 함께 식사를 하던 대

장은 지난봄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신다 싶더니 몸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슴에서 쿵-하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남편 친구 제이는 봄가을 농번기 때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와서 함께 하던 친구입니다. 휴가를 내기 어려울 땐 주말 이틀을 꼬박 외주었습니다. 그러던 제이는 퇴직하고 3년이 지나고부터 오지 않습니다. 농촌에선 누구나 부지런히 살지만 제이는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이가 이제 일은 그만하고 운동이나 하면서 노년을 즐기겠다고 선언한 건 이태 전 가을, 벼 베기를 끝낸 쯤파티 때였습니다. 예순다섯, 아직 젊다고 하는 나이에 그런 용단을 내린 제이를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며 살아온 걸 모두 아는 까닭입니다. 그 후 제이는 정말 우리 작업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에 이은 제이의 빈자리에 기운을 잃은 남편은 경작하던 논을 줄이는 눈치입니다. 불도저 같던 남편도 늙어가고, 정예 멤버는 이제 세 사람으로 줄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논을 마지막으로 인근 논들의 추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4인 식탁 3개가 길게 놓인 작업장 주방에 정예 멤버 세 쌍의 부부가 모여 앉았는데 빈자리가 반이나 남습니다. 고기를 굽고 술잔을 돌리면서 쯤파티를 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빈 논들이 하마 쓸쓸합니다. 저 들녘을 누비던 장정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가는 사람만 있고, 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쓸쓸한 가을 들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발췌)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집회 21,5 참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가난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존과 필요를 인식하라는 도전 과제를 모든 신자에게 내어놓는, 그래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사목적 기회입니다. 이날은 가난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계획들을 실행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워하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제, 축성 생활자, 남녀 평신도는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30기 어머니 학교



가정사목곡(국장 _ 김병찬 베드로 신부)은 10월 19일(토)–20일(주일) 엠마우스 피정의 집에서 제30기 어머니 학교를 실시하였다. 성모님을 닮아 성가정을 가꾸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8개 본당에서 13명이 참석하였다.

감곡본당 상평 · 문춘 공소 피정



공소사도직회(지도 _ 박규성 미카엘 신부)는 10월 27일 상평 공소에서 공소 피정을 실시하였다. '섬김의 공동체' 특강, 그림 맞추기와 말씀 나누기, 발씻김 예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입체미사가 봉헌되었다. 상평과 문춘 공소신자, 봉사자 등 73명이 참석하였다.

청주교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 이야기

출판기념 감사미사

네 빚음이 장하다

- 일시 _ 11.27.수.11:00
- 장소 _ 배티성지 대성전
- 주례 _ 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
- 주관 _ 청주교구 가톨릭문인회



교구장 동정

■ 세계청년대회 십자가 전달식

일시 _ 11월 20일(수)-26일(화)
장소 _ 로마

교구청

건축위원회

일시 _ 11.19. 화. 13:30
장소 _ 교구청

2024년 청소년사목자 연수

일시 _ 11.21. 목. 14:00-22. 금. 12:00
장소 _ 교구 연수원

부모와 함께 하는 영유아교육 '천사학교'

일시 _ 11.23까지 매주 토. 10:30-12: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교리교사 역량강화교육

일시 _ 11.24. 주일. 10: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제32기 아버지학교

일시 _ 11.30. 토. 08:30-12.1. 주일. 15:30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대상 _ 65세 미만 아버지 선착순 30명
회비 _ 12만원
접수 _ 11.20까지 210-1733 가정사목국

제39차 창세기연수 연수봉사자 모집

발대 미사 _ 12.10. 화. 20:00
가톨릭청소년센터
연수 _ 2.28. 금-3.3. 월(마감 _ 12.6. 금)
문의 _ 220-1707, 1703 청소년사목국



음악피정-우리 가정 안에 숨겨 놓으신 보물찾기

일시 _ 12.14. 토. 13:00-17:30
장소 _ 교구청
대상 _ 가족구성원 누구나(선착순 45명)
내용 _ 강의 '가정! 신앙과 관계 성숙의 자리'
성가 묵상 및 미사

강사 _ 이재민 세레자 요한 신부
회비 _ 1인 1만원(12.4. 수 마감)
접수 _ 210-1737 가정사목국

미사·피정

청주 생명수호미사

일시 _ 11.18. 월. 19:30(19:00부터 묵주기도)
장소 _ 사천동 성당(임신부와 태아축복예식 있음)
주례 _ 김영선 티모테오 신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1월 피정(전 신자)

일시 _ 11.21. 목. 09:00-12:30
장소 _ 서운동 성당
강사 _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

가대청연 2학기 연합 종강미사, 총회

일시 _ 11.22. 금. 19: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해외선교후원회 미사

일시 _ 11.23. 토. 11:00
장소 _ 감곡 성당

봉암성지 떼제피정

일시 _ 11.23. 토. 13:00-17:00
장소 _ 맹동 성당
문의 _ 883-0161, 010-5215-8607

감사와 청원의 10주간 철야작정기도

일시 _ 12.20까지 매주 금. 21:00-토. 03:00
(11.29. 금 제외)
장소 _ 초정 성령회관 ※미사, 성시간 있음
내용 _ 묵주기도, 기도, 강의, 안수, 찬양
문의 _ 010-5482-6744 회장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_ 11.22. 금. 14:00
장소 _ 수동 성당
문의 _ 02-3673-2525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자연순례 _ 12.6-8, 12.14-16, 1.11-13
연말연시(한라산눈꽃산행) _ 12.29-1.1
한라산눈꽃산행 _ 1.16-18, 1.20-22
운영 _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_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접수 _ 064-796-4182, 02-773-1455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피정

성경완독 _ 12.6. 금-14. 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 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 예언서 II _ 12.20. 금-22. 주일
문의 _ 010-3340-0201

제주 면형의집 피정

연말연시(한라산눈꽃산행) _ 12.30-1.2
한라산산행 _ 1.17-19, 1.23-25
2.8-10, 2.14-16, 2.22-24
운영 _ 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내용 _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접수 _ 02-773-1463, 064-756-6009

교육·모집

말씀봉사자 월교육

일시 _ 11.20. 수. 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소화잘되는내과

건강검진. 위·대장 내시경, 소화기내시경전문의 2인 진료
태양빌딩 2층(가정동 홀플러스와 모태안산부인과 사이)
원장 이승호 바오로
이희승 | 716-2885

라파엘 해외성지순례안내

2/14,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2/24 터키,그리스 11일 초특가 385만원
대표 유재구 요한 |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낮병원

임상심리사 7명, 심리상담, 당일 종합심리검사
일반보험가(30%), 보호1,2층차상위(0%)
전문의 최영락 경원프란치스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성경, 선자연 | 234-2462, 8

제주성지순례 · 한국성지167

1/7 나가사키 4일, 1/13 나트랑,달랏 5일
1/21 태국,파타야 5일, 2/6 스페인 · 포르투갈 12일
미카엘 여행사 | 010-8650-9690
정상훈 미카엘 | www.michaeltour.co.kr

법무법인 헌암 충주분사무소

민·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
생활법을 무료상담
변 호 사 이두성(비안네) | 853-5700(대)
사무국장 여현구(요아킴) | 충주시 계명대로 117(교현동)

정관장 영동점(계산로 55-1)

홍삼(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단체선물상담, 전화주문, 전국택배
안종길 사도 요한 | 744-2304
홍미월 요 안 나 | 010-5125-3261

레지오 기사교육 2단계 7기

일시 _ 11.23.토.09:30
장소 _ 맹동 성당

성서사도직 창세기 연수

일시 _ 11.23.토-24.주일
장소 _ 교구청

학교폭력예방전문가(공감N성장강사) 양성과정

일시 _ 11.29.금-30.토
장소 _ 늘체인 양업(이정골로 67)
문의 _ 010-5624-3534 *이론, 실습

내수 본당 사무장 모집

자격 _ 세례 5년이상 워드, 엑셀 가능한
50대 이상 남성
문의 _ 216-2831
onestone870@cdcj.or.kr

2025년 교구 꾸르실료 교육

여성 제92차 _ 1.9.목-12.주일
남성 제90차 _ 1.16.목-19.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문의/본당 올드레아 간사)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김장김치 후원자 모집

접수 _ 12.6까지 259-3331 청주노인복지센터

가르멜재속회(청주/충주) 지원자 모집

대상 _ 세례 3년 이상 견진받은 55세 이하
문의 _ 010-4411-3991 청주
010-9026-3873 충주

교구 연극단 단원 모집

대상 _ 교구 내 모든 신자
신청 _ cyh0279@hanmail.net 자기소개서 전송
(성명, 세례명, 나이, 전화번호, 본당, 참가동기)
문의 _ 010-9406-0202 단장

안내·기타

가톨릭청소년센터 고해성사

*11월은 없습니다.

여성연합회 월례회의

일시 _ 11.21.목.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엘리사벳형제회

일시 _ 11.23.토.13:00
장소 _ 사직동 성당

재속프란치스코회 괴산루케치오형제회

일시 _ 11.24.주일.13:00
장소 _ 괴산 성당

교구 안젤루스도미니 x 서울대학교 마니파캅합창단

교류 연주회(마니파캅어린이합창단 창단 30주년기념)
일시 _ 11.22.금.19: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문의 _ 010-6496-5774 *무료 공연

11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상센터 프로그램

분야 _ 이콘, 전례초 조각, 성가
캘리그래피(기초/심화, 자격증반)
전문영상상담(유재선 신부), 성지순례
문의 _ 042-226-8185 *세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 · 출판 · 광고, 성경필사용지 제작 · 판매

청주성모병원은 11월 20일(수) 저녁 7시 CJB미디어 센터에서 '돌보는 이를 위한 돌봄 음악회'를 가톨릭꽃동네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의료현장 및 사회복지현장 등 돌봄 전문직을 위한 위로와 희망을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는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가수 이소정, 교구 안젤루스도미니 합창단이 출연하며 정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진다. 전석 무료 초대권으로 배부되며, QR코드를 통해 예매하면 된다.

수도회 성소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1.23.토.14:00	가톨릭청소년센터	010-9353-1773

소세지대장간

폴란드정통방식의 수제소세지 / 수제킬바사 . 수제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가능합니다.
김창수 안드레아 이보영 안젤라 | **010-4773-9689**

모정 방문요양센터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방문케어 전문기관
등급신청 대행, 요양보호사 파견, 가족요양
대표 지향옥 리드비나 | **010-8593-3779**
네이버 검색 : 모정재가

2025 마샘동행 성지순례

2월 8일-12일, 베트남 성모발현지, 150만원
3월 6일-9일, 홍콩/마카오, 150만원
박경동 마리노 홍덕구 무심서로 705 | **010-9427-1119**

참조은 정형외과 의원

관절, 척추, 통증, 척추교정재활크리닉
도수, 체외충격파 치료 및 물리치료
소창성 비오 권현숙 비아 | **213-0080~1**
(fax 213-0016)

숙성새우젓 · 각종 발효액젓 · 신안탈수햇소금

[강경늘봄젓감] 충구역 기금 마련 상담환영/각종 새우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토하젓, 멍게젓, 친환경 우렁
대표 김형근 루카 신안탈수햇소금 20kg
010-7722-7711 택배비 포함 4만 3천원

증평 현대 장례식장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환영, 신자 특별 우대
증평성요셉공원묘지관리위원장 김영태
김영태 프란치스코 박태수 요셉 | **010-5465-2964**
010-4350-5713